

이상미 LEE Sangmi

<Small but Obvious 작지만 분명한>

이상미는 선의 흔적과 일상의 사물, 그리고 텍스트로 '관계 Relationship'를 표현한다. 일상에 무심하게 흩어져있는 사물들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사적인 기억과 감정은 사물이 가진 내만의 색으로 연장된다. 특히 금박의 표현은 작고 유약한 사물의 강한 내면의 힘, 그 안의 "반짝임"을 발견하고자하는 작가의 염원이다.

작가소개

[iiiew@naver.com](mailto:iiiew@naver.com)

[www.sangmilee.com](http://www.sangmilee.com)

<https://www.instagram.com/artist.leesang/>

010 4185 2022

작업실: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7동 101호

이상미작가는 École des Beaux-arts de Versailles에서 판화를 했으며, 홍익대학교 판화과 박사과정 수료중입니다.

작가와 관계를 맺는 일상의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드로잉과 지판기법을 위주로 작업하고있습니다.

- 2017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5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과 졸업
- 2009 BFA École des Beaux-arts de Versailles, 조형예술학 졸업, France

주요전시

- 2019 Small but Obvious, 인사아트센터
  - 2018 LEE sangmi solo Exhibition, ANDLAB Gallery, 미국
  - 2017 Entre eux et moi - 그들과 나 사이, 아트스페이스 켈리아
  - 2016 Entre eux et moi - 그들과 나 사이, 안젤리미술관
  - 2015 BELT 선정작가 프로젝트: Noodles-All about Relations, 유아트스페이스
  - 2019 네개의 시간, 하나의 공간, 인사아트센터
  - 2019 브리즈 아트페어, 노들섬
  - 2019 Master of Korean printmakers, 이르쿠츠크 주립 미술관, 러시아
  - 2019 제18회 레세드라 국제 프린트 아트 프로젝트 - 미니 프린트 2019, 레세드라 아트 갤러리, 불가리아
- 외 다수의 그룹전경력

소장

- 2016 / [Noodles-The Scene of Relationship](#) / 사르셀 시청, 프랑스
  - 2014 / [Noodles-After All Our Relationship](#) / 단원미술관상
  - 2013 / [Noodles-After All Our Relationship](#) / 부산은행
- 외 다수 개인 소장

## 수상

- 2015 제17회 사르셀 국제 판화 비엔날레 '특별상', 프랑스
- 2015 BS금융그룹 청년작가 평면미술 공모전 '입상'
- 2014 제16회 단원미술제 판화부문 '최우수상' 외 다수입상

## <Small but Obvious 작지만 분명한>

이상미는 선의 흔적과 일상의 사물, 그리고 텍스트로 '관계 Relationship'를 표현한다. 일상에 무심하게 흩어져있는 사물들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사적인 기억과 감정은 사물이 가진 내면의 색으로 연장된다. 특히 금박의 표현은 작고 유약한 사물의 강한 내면의 힘, 그 안의 "반짝임"을 발견하고자하는 작가의 염원이다.